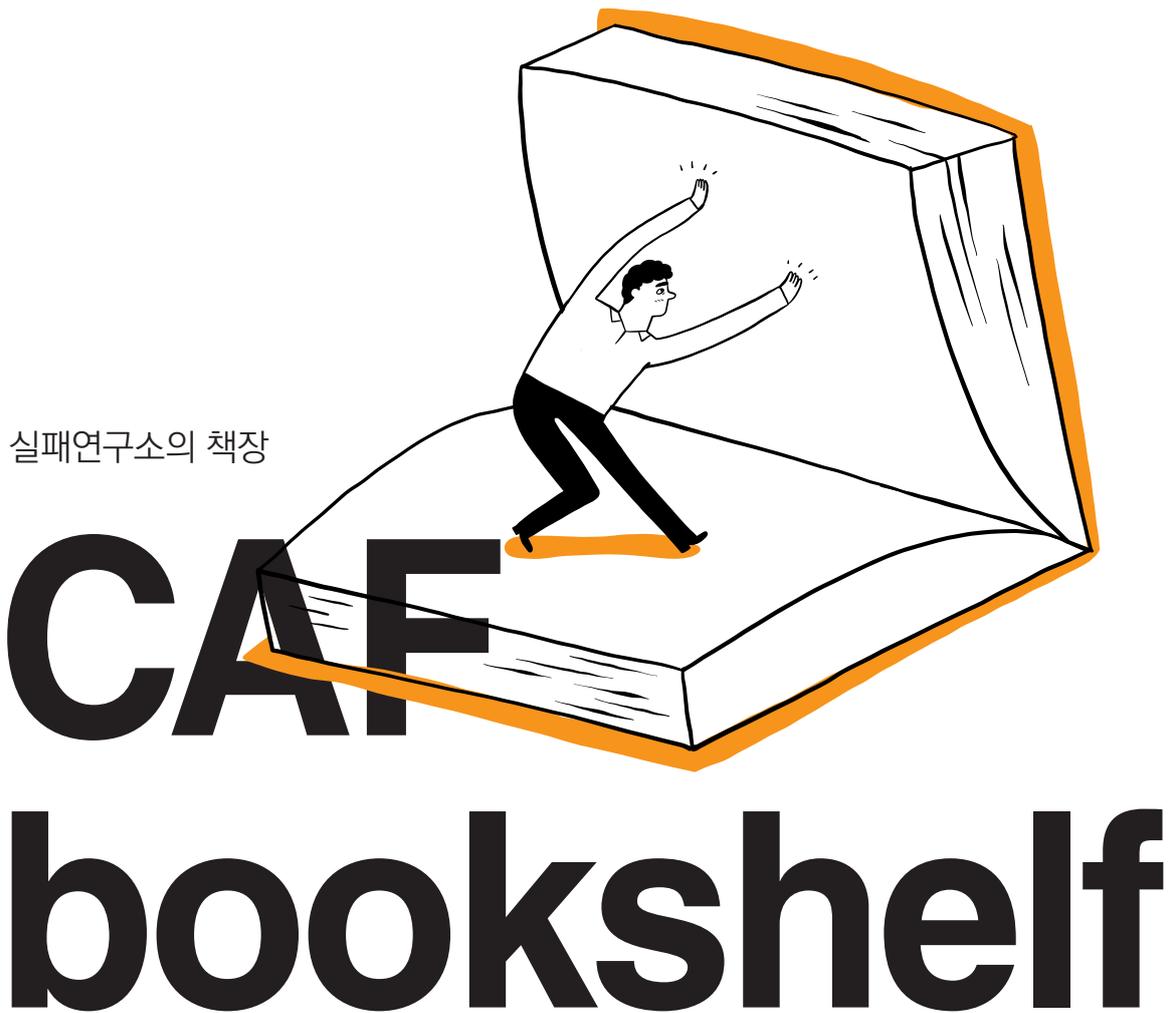


실패연구소의 책장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조직의 조건



두려움없는 조직
The Fearless Organization

에이미 에드먼슨 지음
최윤영 옮김
다산북스

조직은 어떻게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을까? 복잡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실패를 통해 빠르게 배우는 조직이 필요하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중신교수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리더십 구루 에이미 에드먼슨은 이 책을 통해 혁신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구성원들이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 주장한다.

'심리적 안전감'이란,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제기해도 벌을 받거나 보복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조직환경을 의미한다. 구성원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고, 실수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으며,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부하직원이 리더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조직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책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기업부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형 참사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안전감이 어떻게 업무 효율과 성과,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또한 조직에 심리적 안전감을 어떻게 자리잡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심리적 안전감 구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다. 에드먼슨 교수는 기존의 조직이 실패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실패를 예방하는 것을 업무의 목표로 삼았다면, 혁신을 원한다면 실패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당연한 결과로 보고 실패를 통해 학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을 권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실패를 숨기는 대신, 과감히 실패를 수면 위로 드러내어 토론하고 학습하며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한편 이 책은 심리적 안전감이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구성원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심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단순히 마음씨 좋은 상사가 되는 것이 아닌 조직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써 리더가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거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함께 효과적으로 일하기'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